

금강 천리 비단 물결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

비단을 풀어 놓은 듯 아름다워 '비단강'으로 불리던 금강은 한강,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다. 전북 장수 뚝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비단결 같은 치마폭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고도를 품고, 서해와 만나 394.79km의 긴 여정을 마감한다. 근대에는 그 물길을 따라 일제의 수탈이 자행되기도 했다. 백제의 화려한 숨결이 굽이마다 서려 있는 금강은 햇볕을 받아 비단처럼 반짝일 때도 아름답지만, 해넘이와 야경도 좋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이진욱 기자





백제의 왕궁이었던 공산성은 해발 110m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흩으로 쌓은 포곡형 산성이다.

금강 따라 짚어가는 백제의 향취

한강에 이어 금강 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공주의 공산성과 부여의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일궈냈다. 선사시대부터 최적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강은 농경에 유리하고 외침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점이었다. 시간을 싣고 유유히 흘러가는 비단강을 따라 봄기운이 완연하다.

“백제,/ 예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거름을 남기는 곳,/ 금강,/ 예부터 이곳은 모여/ 썩는 곳,/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
-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중에서

금강(錦江)은 전라북도 장수군 신무산의 땀봉샘에서 시작해 무주, 옥천, 대전, 공주, 부여, 강경, 군산 등을 거쳐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394.79km의 길이, 천 리의 물길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즉 상류에서부터 적득진강·차탄강·화인진강·말흘탄강·형각진 등으로 부르고, 공주에 이르러서는 웅진강, 부여에서는 백마강, 하류에서는 고성진강으로 부른다. 인류의 문명이 갠지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 또는 황허(黃河) 유역에서 발달했듯이, 남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다음으로 긴 강인 금강의 물줄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이었다. 공산성은 금강을 천연 요새로 삼아 쌓은 성이다. 금서루에서 만하루, 진남루를 거쳐 금서루로 돌아오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 유역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서로 기대며 살고 있다. 금강 유역은 선사시대부터 최적의 삶의 터전이었다. 금강과 접한 산의 완만한 경사면이 만나는 지대에 위치한 공주시 장기면의 석장리에는 약 1만 년 전 구석기인이 살았다. 사적 334호로 지정된 석장리 유적지에서는 갠석기, 밀개, 굽개, 찌개, 찌르개, 주먹도끼 등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돼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전기, 중기, 후기의 유적층이 다 있을 뿐 아니라 약 2만5천 년에서 3만 년 전 집터도 발견됐다. 유적 내 석장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 박물관으로 석장리 유적을 발굴, 전시하고 있다. 구석기 인류의 진화 과정,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 석장리 유적의 발굴 과정이 차례로 이어진다. 박물관 외부에는 구석기인의 생활상을 담은 선사공원과 발견된 집터를 토대로 막집을 복원한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

금강을 끼고 쌓은 천혜의 요새 공산성

석장리 유적지에서 금강이 흐르는 쪽으로 내려오면 금강을 끼고 쌓은 천혜의 요새 공산성(公山城)이다. 웅진 시기(475~538) 백제의 왕궁이었던 공산성은 해발 110m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흩으로 쌓은 포곡형 산성





고마나루는 금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송림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다.

과 임진왜란 때 승병 훈련소로 사용되었던 영은사가 있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1천500년 전 고대 왕국 백제의 향취가 가슴속 깊이 전해져 온다. 조선 시대 이괄의 난 당시 인조의 피란한 역사를 품고 있는 쌍수정 아래는 옛 백제 왕궁지로 추정하는 너른 터와 인공 연못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새로 궁궐을 지었는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나 사치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밤에 조명이 켜지면 은은한 불빛을 받은 성곽이 금강에 반영되고, 성 건너편 둔치에서 바라보는 공산성 야경은 마치 용 한 마리가 누워 있는 모습이다. 공산성에서 금강 쪽으로 1.5km 정도 가면 곰이 뛰어놀았다고 해 ‘곰나루’라는 뜻을 가진 고마나루가 나온다. 공주는 옛날엔 우리말로 고마나루라 부르고 웅진(熊津) 등으로 적었는데, 고려 태조 때 공주(公州)가 됐다. 고마나루는 금강을 오가던 배가 사람과 물자를 부렸던 가장 큰 나루터였다. 이곳에는 공주의 대표 전설인 인간을 사랑한 곰의 슬픈 이야기인 ‘곰나루 전설’이 서려 있다.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진단터와 곰을 모신 곰사당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이 방향을 갑자기 꺾어 남쪽으로 흐르는 곳으로, 금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솔밭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비단 물결은 공산성을 지나 고마나루를 휘감아 돌아간다. 공주의 옛 이름인 웅진(熊津)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다. 성곽의 총 길이는 2천660m이다.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약 400m 정도의 장방형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위례성 칙령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공주의 옛 지명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고, 웅진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60여 년 동안 백제 왕국의 중심이었다. 비록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밀려 공주까지 내려왔지만, 차령산맥과 금강으로 둘러싸인 공주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천혜의 방어벽을 갖추었다. 또 백제와 긴밀한 관계의 지방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왕권이 약하여 혼란이 거듭되었으나 무령왕대부터 안정을 되찾고 백제의 중흥을 일궜다. 공산성 내에서 확인된 다량의 기와, 연꽃무늬와 바람개비무늬로 장식된 와당, 중국제 자기는 백제시기 공산성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데, 문화와 교류 강국이었던 백제의 개방성과 국제성은 서해로 연결되는 금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산성에는 네 개의 문이 있는데, 공산성을 일주할 때는 푸른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공산성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서문의 금서루를 출발지로 삼는다. 금서루에서 금강이 흐르는 왼쪽으로 걸어가면 공산성에서 가장 높은 공북루가 나온다. 누각에 오르면 공산성을 휘감아 돌아가는 비단 물결과 ‘강물을 끌어당기는 누각’이란 뜻을 지닌 만하루(挽河樓), 성벽을 따라 노란색 비탕에 백호·주작 등이 그려진 깃발, 공주 신시가지의 고층 아파트, 1933년에 놓은 금강교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만하루는 금강 쪽을 지키는 군사적 기능과 금강의 경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누각으로 뒤쪽에는 연못



금강은 백제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산 곳이다. 공주 석장리유적은 구석기인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삼천궁녀가 떨어졌다는 낙화암 정상에는 백화정이 자리하고 있다. 황포돛배를 타야 낙화암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 등 백제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옛 도읍이다. 부소산성 곳곳에는 부여의 마지막 숨결이 스며 있다.

백제의 흥망을 지켜본 부소산성

538년 백제 성왕은 왕국의 미래를 기약하며 농경에 유리하고 외침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비(부여)로 천도한다. 공주에서 35km 남서쪽에 위치한 부여는 ‘날이 부영게 밝았다’는 뜻으로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또한 멸망의 처절한 아픔을 맛았던 고도다.

성왕은 부소산 일대를 중심으로 철저한 계획을 통한 도읍을 건설했다. 백제의 마지막 왕성인 부소산성은 군창지와 사자루의 산봉우리를 머리띠 두르듯 쌓은 테뫼식 산성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 혼합된 복합식 산성이다. 성 앞의 관복리 유적은 백제 왕궁터로 추정되며 건물터, 공방시설, 도로, 연못 등이 확인됐다.

백마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마지막 숨결이 곳곳에 스며



4 백마강을 끼고 있는 부소산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름났다. 5 부여 궁남지는 백제 무왕 때 궁궐 남쪽에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다.

있다. 해발 106m의 나지막한 구릉인 부소산의 정상부에 쌓은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마지막 충신 성충과 흥수, 계백의 영정을 모신 삼충사, 군량미를 보관하던 창고나 피란 시설이 있었던 군창터, 땅을 파고 생활하던 수혈 주거지, 사자루, 반월루, 부여 동헌과 객사 등 많은 유적이 있다.

부소산성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백마강가에 서 있는 높이 40m의 절벽인 낙화암이다. 사비도성이 나당연합군에 함락됐을 때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 정상에는 죽은 궁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자 백화정이 있고, 낙화암 절벽 아래에는 아담한 절 고란사가 자리잡고 있다. 고란사에서 목을 축이고 매표소로 다시 나오거나 바로 옆 나루터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백마강에서 낙화암을 감상하고 구드래나루터로 갈 수 있다. 부소산성과 삼천궁녀, 그 이름만으로도 백제의 희미한 숨결이 느껴진다.

경주 동궁과 월지보다 먼저 만들어진 부여 궁남지는 궁궐 남쪽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다. ‘삼국사기’는 “무왕 35년(634년)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서 물을 20여 리 끌어들었다”고 전한다. 패망한 백제의 수도 부여의 궁남지는 여름이면 흥련, 백련, 수련 등 갖가지 연꽃을 활짝 피워낸다.

아름다운 경관과 나라 잃은 슬픔이 겹쳐져 있는 공산성과 부소산성을 돌아본 뒤 금강 변에 있는 청벽산(277m)에 오른다. 폭 100m, 높이 25m의 거대한 바위 절벽 위에 있는 금강 조망 포인트에 서면 발아래로 굽이굽이 도도히 흐르는 금강의 장쾌한 풍광이 펼쳐진다. 강물은 쉼 없이 흘러가고, 강과 산을 물들이는 해넘이는 아름답다.



1, 2 고란사는 절 뒤편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고란약수와 화귀 아생초로 유명하다. 약수를 한 번 마실 때마다 3년 젊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3 부소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자루에서는 금강과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강경, 근대 변혁과 식민 수탈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조선 3대 시장의 명성과 영화를 누렸던 강경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일제강점기까지 번성했던 옛 영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영화는 모두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전국 제일의 젓갈시장 명성을 지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에 끼여 있어 바닷사람과 내륙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교역이 활발하였다. 봄과 여름 동안은 생선을 잡고 해초를 뜯느라고 비린내가 포구에 넘치고, 5월의 황새기젓과 7월의 새우젓이 풀릴 때는 오륙십 척의 배가 몰려들어 화장들이 내뿜는 연기로 포구의 하늘은 암회색의 바다였다.”
- 김주영의 '객주'에서

금강은 백제의 고도 공주와 부여를 지나 대구,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상세가 컸던 강경포구에 닿는다. 강경은 도시를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 서해로 연결돼 있어, 주변의 비옥한 평야에서 나오는 온갖 곡물을 실어 날랐고 내륙으로 소금과 어물을 공급하면서 큰 교역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나주와 태안 등에서 강경에 집산된 소금이 2만 석이 넘었고, 강경 객주와 보부상에 의해 각처로 유통됐다. ‘동해에 원산이 있다면 서해에는 강경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금뿐만 아니라 서해의 해산물과 내륙의 농산물이 금강 수운을 따라 강경으로 모였다가 팔려 나갔다. 역사소설 ‘객주’로 유명한 김주영 작가는 보부상의 삶과 활약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다가 강경에서 간첩으로 몰려 몰매를 맞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1899년 군산이 부산, 원산, 제물포, 경흥, 목포, 진남포에 이어 일곱 번째로 개항되면서 강경 상권은 일본 상인이 거머쥐기 시작했다. 1897년 단 1명에 불과했던 일본 상인은 1천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강경 시가지

엔 관청, 은행, 학교, 우체국, 호텔, 주택 등이 들어섰다. 한때 인구가 3만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전국 최대의 상업지로 명성이 높았던 강경은 1905년에 경부선, 1912년에 군산선, 그리고 1914년에 호남선 등 철도 개통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철로와 연결된 군산과 대전, 전주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예나 지금이나 금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지금의 강경에는 흥성했던 일제시대의 건축물과 젓갈시장의 명성만 남아 있다.
강경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나 걸어서 둘러보기에 좋은 여행지다.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고등학교,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과 강경노동조합, 연수당 건재 한약방, 강경갑문 등 강경의 근대 건축물을 두루 만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기에 좋다.
강경 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등록문화재 324호)은 1913년에 건축된 붉은 벽돌조 건축물로 당시 번성했던 강경 지역의 상권을 대표하는 금융시설이다. 건물 오른쪽에 창고와 뒤쪽으로 살림집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강경 지역 근대역사자료와 지역 서민생활과 관련 깊은 각종 도구 등을 통해 근대 강경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강경 상권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구 강경노동조합(등록문화재 제323호)은 강경역사문화안내소로 활용되고 있다. 1923년에 지어진 연수당 건재 한약방(등록문화재 10호)은 한옥 상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상업시설이 있고 2층에는 주택시설을 두었다.
황산근린공원의 돌산전망대에 오르면 강경읍내와 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공원에는 소설가 박범신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고, 그 맞은편에 유람선 모양의 강경젓갈 전시관이 있다. 4층 규모로 ‘인간과 소금의 만남’, ‘염장법과 음식문화’ 등 젓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다.



강경포구는 내륙지역이면서도 금강 하류와 가까워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충지였다, 지금 둔치는 산책로와 잔디축구장이 들어선 체육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1, 2 논산시 강경읍에 소재하는 옛 한일은행 강경지점에 들어선 강경역사관은 강경 지역 근대역사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3 근대 건축물 안내 표지판. 4 돌산전망대.
5, 6 지금도 전국 제일의 젓갈시장 명성을 지키고 있는 강경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젓갈 상점이 포진하고 있다.





신동엽 문학관

4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민족시인 신동엽은 ‘깁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위선과 허위에 가득찬 세상을 질타했고, ‘금강’을 통해 저항의 역사의식을 찾았다.



신동엽 시인의 생가와 바로 뒤편의 문학관에서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두루 들여다볼 수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유족이 기증한 시인의 육필 원고와 편지, 사진, 책이 전시돼 있다.

“백제, 천오백 년, 별로 오랜 세월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몇 번 안 가서 백제는/ 엇그제 그꼬제 있다.”
- 신동엽 서사시 ‘금강’ 중에서

민족시인 신동엽(申東曄·1930~1969)에게 금강은 역사이고 그 역사가 흘러 정신을 남기는 곳이다. 1967년 12월 37세 때 펜클럽 작가 기금으로 장편서사시 ‘금강’을 ‘한국 현대 신작 진집’(을유문화사)에 발표했다. ‘금강’은 동학농민혁명을 문학과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신동엽이 태어난 부여읍 동남리는, 마을을 조금 벗어나면 초록으로 눈부신 금강의 물줄기가 넉넉히 흐르고,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것처럼 참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농촌이다. 생가는 1985년 유족과 문인에 의해 복원됐고, 본채 마루에는 부인 인병선 씨가 쓴 시 ‘생가’가 걸려 있다. 생가 뒷마당과 이어진 문학관 마당에는 시인의 대표시 구절을 그대로 하늘에 매단 듯한 임옥상 화백의 조형물이 깃발처럼 늘어서 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문학관에는 만년필을 함껏 움켜쥔 시인의 흉상, 대표작 ‘깁데기는 가라’와 서사시 ‘금강’의 초고, 육필 원고, 부인 인병선씨와 주고받은 편지, 엘리엇 시집·톨스토이 장편소설 ‘부활’·투르게네프 산문집·고리키 소설 ‘소년시대’ 등 시인이 읽었던 책 등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빼곡하다. 신동엽문학상 수상작가 관에는 이문구, 현기영, 광재구 등 역대 수상 작가들의 사진과 수상 도서로 꾸며졌다. 신동엽 문학상은 1982년 제정됐다.

여는 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새해 첫날, 설날, 추석



채만식 문학관

채만식의 작품 중 풍자적 기법이 가장 뛰어난 소설 ‘탁류’는 도도히 흐르는 금강의 물결을 역사에 빗대어 식민지 시대의 삶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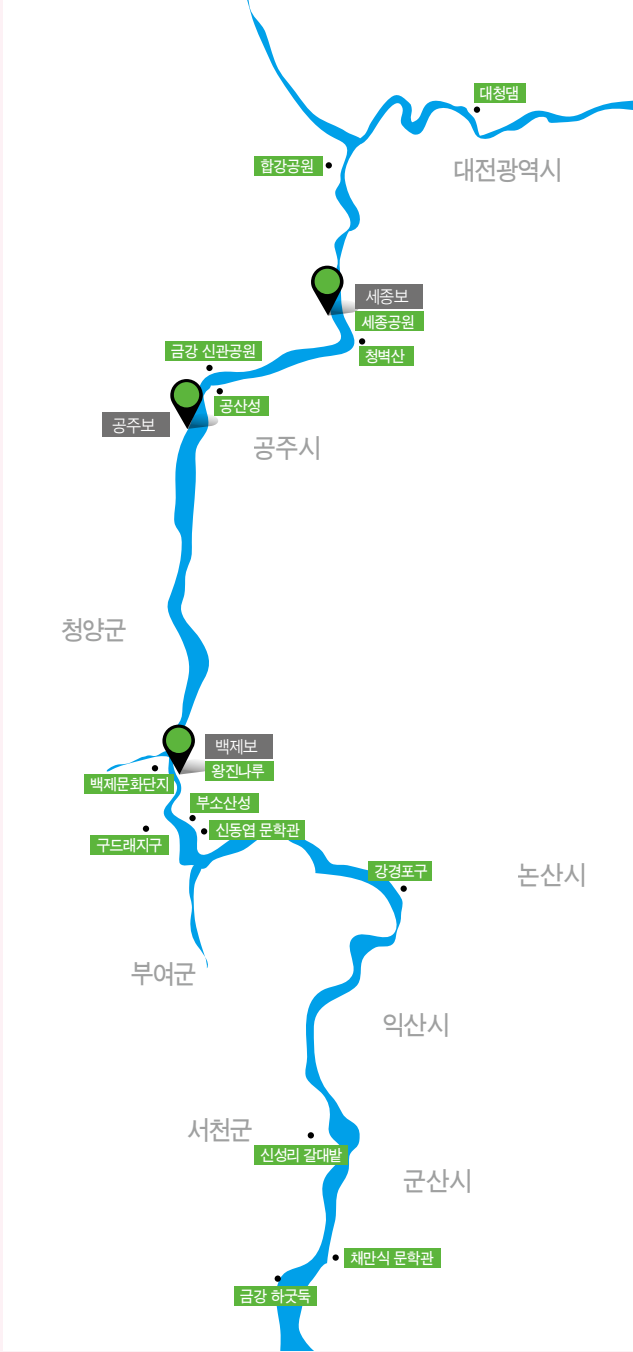
“이 강은 지도를 펴놓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줄기가 중동에서 남북으로 납작하니 짜져 가지고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만식(蔡萬植·1902~1950)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탁류(濁流)’ 첫 머리다. 조선일보에 연재(1937.10~1938.5)됐다가 1939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탁류’는 1930년대 군산이란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식민지 시대의 혼탁한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는 한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어두운 세태를 그린 작품이다. 금강하구의 항구도시 군산에서 태어난 채만식은 풍부한 어휘와 풍자, 반어, 역설, 새로운 구성 방식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작품에 다각적으로 반영했다. 장·단편 소설만 해도 200여 편에 이르며 기타 동화나 수필 등 다양한 장르까지 포함하면 생전에 1천여 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금강하구둑 옆 2층 규모의 채만식문학관에서는 파노라마식으로 채만식의 치열한 삶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 1층 전시실에서는 채만식의 문학 연보와 탁류 초판본, 작품이 쓰인 당시의 군산 모습을 담은 사진, 외투·중절모·육필 원고·편지 등 유품, 탁류 초판본 등을 통해 채만식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 수 있다. 2층 시청각실에서는 채만식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문학관 주변에는 채만식의 문학을 음미할 수 있는 미두, 백류, 청류, 문학 광장이 있다. ❶

여는 시간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쉬는 날 매주 월요일, 새해 첫날, 임시 휴관일



전체적으로 정박한 배의 형상을 한 채만식문학관은 문학 연보와 집필 모습, 편지, 도서 등을 통해 채만식의 삶과 작품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INFORMATION



금강 종주 자전거길
대청댐 물문화관부터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를 거쳐 서천 조류생태관까지 금강을 따라 난 총 146km의 자전거 코스이다. 금강 종주 자전거 길은 주변 풍광이 빼어날 뿐 아니라 경사도 적당해 여유로움을 준다. 구간에는 함강공원과 세종공원, 예부터 시민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공주의 청벽, 백제의 왕성인 공주 공산성, 부여의 부소산성과 낙화암, 논산의 강경포구, 서천 신성리 갈대밭이 있다.

코스 정보 : 대청댐 물문화관(대전 대덕, 좌안) - 세종보(충남 연기·좌안) - 공주보·고마나루(충남 공주·좌안) - 백제보(충남 부여·좌안) - 강경포구(충남 논산·좌안) - 성당포구(전북 익산·좌안) - 조류생태관(충남 서천·우안)



둘러볼 곳



금강 신관공원
금강 신관공원에는 박찬호 꿈나무 야구장을 비롯해 축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운동 시설과 벤치, 강변을 따라 조성된 2.9km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이 있다. 저녁에는 공산성의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공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일반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4인용 네발자전거, 아동용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금강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연꽃, 튼실히, 꽃잔디 등 다양한 식물이 심어져 있는 정안천 생태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금강문화관
금강에 조성된 3개의 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백제보의 동단에 위치한 금강문화관은 연면적 2천722㎡에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갖춘 지상 3층 건물이다. 전시실은 희망나눔존, 새물결꿈존, 물길여행존, 사람사랑존, 감동소통존으로 구성됐다. 감동소통존의 세계적 디자이너인 ‘도쿠진 요시오카’의 작품 ‘Gate into Water’는 빛을 이용해 아름다운 물속 공간 이미지를 연출한다. 백제보는 계백장군을 테마로 말을 타고 백마강을 바라보는 계백장군을 형상화했다.



자연휴양림



만수산 자연휴양림
치령산맥 끝부분 만수산(해발 575m) 아래에 자리한 만수산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소나무숲과 계곡 사이에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아영장, 물놀이장,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족구장, 등산로, 산책로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두루 갖췄다. 산세가 연꽃처럼 여덟 계곡으로 형성돼 경관이 수려한 만수산 숲 속을 거닐다 보면 상쾌한 솔내음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등산 코스는 2시간부터 8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고, 인근엔 고려시대에 지어진 천년고찰 무량사가 있다.



금강 자연휴양림
세종시 금남면(옛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금강 자연휴양림은 계룡산 줄기인 국사봉(392m) 자락에 위치해 있다. 휴양림 내 수종은 주로 활엽수이고, 숲 속에서 내려다보이는 금강의 풍경도 볼만하다. 금강 자연휴양림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온실, 연못, 야생동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특히 금강수목원은 총 30개 소원(小園)으로 구성됐는데, 4월에 만개하는 목련원과 철쭉원, 6월에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하는 장미원, 가을 정취를 한껏 감상할 수 있는 단풍나무원이 인기 높은 대표적인 소원이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에 관련된 자료 3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음식



군산 복성루
군산시 미원동에 위치한 복성루는 전국 3대 찜뽕집의 리스트에 오른 맛집이다. 커다란 냉면 그릇에 찜뽕이 나온다. 오징어, 홍합, 꼬막 등 다양한 해산물과 야채를 넣고 끓인 진한 국물과 따로 볶아서 얹은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볶음밥도 맛있다. 짜장 소스와 국물의 양도 넉넉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지만 그날 준비한 재료가 떨어지면 바로 문을 닫는다. 찜뽕 8천원, 볶음밥 8천원, 탕수육 2만5천원.

고가네 칼국수
공주는 칼국수의 도시다. 칼국수를 전문처럼 끓여주는 곳이 많고, 칼국수집 대부분이 수육을 내놓는다. 고가네 칼국수는 우리밀로 면을 만든다. 표고버섯, 배추, 호박 등 갖은 채소들이 들어간 사골육수가 끓으면 면을 넣어 족석에서 끓여 먹는다. 면은 쫄깃하고, 국물 맛은 담백하고 시원하다. 수육은 부드럽지만 느끼하지 않다. 국수전골 6천원, 보쌈수육 1만5천~2만원, 해물파전 1만원.



▲군산 이성당
1910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성당은 대전 성심당과 안동 맘모스 제과점에 이은 전국 3대 빵집 중 한 곳이다. 이성당은 ‘이씨 성을 가진 초대 사업주가 운영하는 빵집’이라는 뜻이다. 채소가 듬뿍 채워진 야채빵과 쌀가루로 만든 피와 달콤한 팔랑김의 환상적인 조화가 일품인 단팥빵이 나오는 시간이면 빵집 앞은 손님들로 길고 긴 줄을 이룬다.

▶연꽃빵
경주에 황남빵이 있다면 부여에는 연꽃빵이 있다. 부여 연꽃빵은 백제문화의 상징인 연꽃 모양이다. 생연꽃과 생연잎을 끓여서 우려낸 물에 연잎분말과 찹쌀가루, 밀가루 등을 배합해 연꽃빵을 만든다. 맛은 깔끔하면서도 달콤하다. 부여에서 연잎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연꽃빵을 맛볼 수 있는 곳은 궁남지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백제연과 백제향’이다. 연꽃빵에 들어가는 연꽃은 주인이 직접 재배한 것으로 아침에 꽃잎이 열리기 전에 따서 냉동 보관한다.